

[기조연설]

세계 진보, 포용과 협력에 달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따뜻한 환영에 감사 드립니다. 제주포럼에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 다시 참석하게 돼 기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정부 고위인사, 재계와 학계 인사, 활동가, 특히 젊은이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주포럼을 주관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창립될 때 나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설립 취지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건설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떠날 때 나는 한국민들에게 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늘 한국, 넓게는 아시아의 유산에 자랑스럽게 의존해왔습니다. 아시아 지도자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감사 드립니다. 아시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라는 강력한 대륙은 세계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행동, 지역 협력, 한반도 안정,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서로 연관된 이들 이슈를 잘 다뤄나가는 것은 아시아인은 물론 세계인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중 평화와 인간과 지구를 위한 글로벌 행동이 우선입니다.

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와 유익한 양자회담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는 위기 상황 대응을 개선하는 데 참여할 것을 확고히 다짐하였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인도주의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정부 실패부터 인권 유린까지 많은 요인들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풍력, 태양광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 현상을 해결하는 리더인 셈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태양광발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에 해당하는 55개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177개국이 파리협약에 서명했고 현재 1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파리협약 비준을 서둘러주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5년까지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인 4억5000만 명이 여전히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과 용지 부족, 환경오염 등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2030년 어젠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의 진보는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국제사회 기여를 고맙게 여깁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한 나라 상위 5위 중 4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들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계속 경제적 활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진보와 민주화 진전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많은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 체제로 평화적인 이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총선은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다인종, 다종교 민주 체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얀마의 새 지도부는 이제 전면적인 인권존중과 함께 차별 극복, 평등 보장, 포용적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계속 아시아의 민주적 개혁을 지지할 것입니다.

글로벌 행동은 오늘 내가 제시하는 둘째 주제인 지역 협력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같은 지역 협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중일 3국 간 7차 정상회의는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열려야 합니다.

유엔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긴밀히 손잡고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키는 일에 유엔은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진보는 도전에 맞섬으로써 이뤄집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영토, 영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관련국들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관련국들은 유엔헌장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공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나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 선언' 원칙 아래 행동수칙에 관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해왔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 테러, 기타 안보 위협이 아시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하나의 지역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시아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대륙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아시아는 오래된 불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영토 분쟁도 이제 합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불행했던 과거사 문제들을 정확하고 겸허하게 다뤄야 미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대륙에서 봐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은 관련 합의와 기구 조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아시아 대륙에는 급속히 성장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깊은 대화와 참여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협력을 넓히고, 파트너십을 키우고, 협업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폭력적인 충돌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패배한 세대와 더 심한 빈곤, 깊은 비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심이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한국인이지만, 글로벌 시민이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늘날 지리적 국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글로벌 안목을 갖춘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런 정신이 진보를 이끕니다.

글로벌 행동과 지역 협력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곳 한반도의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려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결연히 대응하였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는 결의안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사회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국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다한 군비 지출이 계속되는 동안 어린이들은 학대받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잘못된 일들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화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합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떤 방식이든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지속적 평화에 필수적입니다.

넷째 주제인 인권과 관련해 아시아에서도 진보가 이뤄져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지역 단위에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제 지역 협력이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진보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아세안 정부 간 위원회 설립과 아세안 인권선언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아시아가 인권 유린에 맞서 종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시민사회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관용과 혐오 발언, 폭력사태가 늘어나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종교적 소수자, 이민자, 난민,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포용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해온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주민 집단거주지역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대부분 힘든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업, 연예계,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해외 아시아인들은 타인을 포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이 아시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이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요망합니다.

나는 아시아적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마추어 서예가로서 나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문구를 자주 연습하곤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행동한다"입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성, 소프트파워를 상징합니다. 아시아는 이런 귀중한 특성을 널리 확산시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전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합니다.